

2022.03.18



Daishin Research Center

# Daishin Research

## Morning Meeting Brief

2022.03.18



섹터	제목	작성자
Strategy	3월 FOMC : 매파적이었지만, 컨센서스에 부합. 핵심 포인트는?	이경민
글로벌전략	진격의 시간. 미국 증시에 해가 비친다	문남중
[산업 및 종목 분석]		
LG전자	[1Q22 Preview] 수익성은 1Q 선전, 22년 최고 실적 예상	박강호

## Strategy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3월 FOMC : 매파적이었지만, 컨센서스에 부합. 핵심 포인트는?

-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 확인.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 & 빅스텝 우려 완화
-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제어국면 진입. 경기회복 가시화 전망. 증시 방향성은 상승으로 잡아갈 것
- 단기적으로 2,730p ~ 2,770p 돌파/안착 여부가 관건. 점진적으로 KOSPI 포트폴리오 베타를 높여가는 전략 권고

- 3월 FOMC라는 큰 고비를 넘겼다.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를 확인했지만, 금리인상 속도/강도에 대한 우려는 정점을 지나, 제어가 가능한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본다. 이제 중요한 것은 경기의 향배이다. 향후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회복 가능성을 높게 본다. 특히, 미국은 고용서프라이즈와 맞물려 항만 물동량, 육상운송 회복세가 뚜렷하다. 우크라이나 - 러시아 사태에 대한 금융시장 민감도도 점차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증시는 시간을 두고 방향성을 상승으로 잡아갈 전망이다.
- 3월 FOMC 이후 KOSPI 변동성 확대는 비중확대 기회라는 판단이다. 단기 급반등이 전개됨에 따라 추격매수 여부에 대한 고민이 클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2,730 ~ 2,770p 저항선 돌파/안착 여부를 확인하면서 매매강도를 조절해 나가는 전략이 유리해 보인다. 동 지수대에서 KOSPI가 하방압력, 변동성을 높여간다면 추격매수는 자제하고,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확대 전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추세반전의 퍼즐이 하나 둘 맞춰지고 있지만, 단기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는 불확실성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직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다.

# 글로벌전략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 진격의 시간. 미국 증시에 해가 비친다

- 3월 FOMC 이후, 낮아진 불확실성. 향후 미 증시가 불확실성에 맞서 감내할 체력이 좋아질 수 있는 3가지 이유
- 1) 3월 FOMC, 통화정책 불확실성 해소, 2)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서 벗어날 미 증시, 3) 과거 금리 인상기, 미 증시 상승
- 3월 FOMC 이후, 미 증시가 투자의 대상으로 바뀌는 시점. 성장주를 담는 투자기회(IT, 헬스케어, 전기차&2차전지, 메타버스, 우주항공)

- 미국 증시가 감내할 수준으로 불확실성은 낮아졌다. 3월 FOMC를 마지막으로 2/4분기 증시를 흔들만한 새로운 변수의 등장은 없다. 3월 FOMC 이후, 불확실성에 맞서 증시가 감내할 체력이 좋아질 수 있는 이유는 크게 3가지이다.
- 우선 3월 FOMC는 향후 통화정책 수순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줬다.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과 내년~내후년 금리 전망의 중간값을 각각 1.9%, 2.8%로 제시해, 올해 남아있는 정례 회의에서 6차례 금리 인상과 한 차례 정도의 빅스텝 단행을 시사해줬다. 또한 QT(양적긴축) 시점을 빠르면 5월로 주지시켜 줬다. 금리 인상과 QT 병행은 수익률곡선 평탄화를 완화시켜 금융기관 위험경감과 비관적 경기 전망 확산을 억제하는 순기능이 있다.
- 두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서 미국 증시는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1, 2차 석유파동 시기, 일관된 긴축 통화정책의 수행 여부가 스태그플레이션기의 물가 안정을 좌우했다. 올해 일관된 긴축정책을 수행할 연준의 행보는 증시도 물가 우려에서 벗어나며 상승할 수 있다는 반증이다. 세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는 점이다. 과거 네 차례의 금리 인상기 동안, 평균적으로 S&P500지수는 21.9% 올랐다.
- 3월 FOMC 이후, 낮아진 불확실성과 감내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춘 미국 증시가 투자의 대상으로 바뀌는 시점이다. 성장주를 담는 투자기회로 삼아야 한다(IT, 헬스케어, 전기차&2차전지, 메타버스, 우주항공).

# LG전자 (06657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80,000**

유지

현재주가  
(22.03.17)

**126,000**

## 수익성은 1Q 선전, 22년 최고 실적 예상

### 투자의견 매수(BUY) 및 목표주가 180,000원 유지

- LG전자의 2022년 1분기 영업이익은 별도(9,952억원 299% qoq/-30% yoy) 및 연결(1.342조원 98% qoq/-24% yoy) 기준으로 우려대비 양호
-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물류비용 증가가 가전(H&A), TV(HE) 부문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 그러나 가전(H&A) 매출은 프리미엄 및 신가전 중심으로 판매 증가, 비중 확대로 전년대비 16.2% 성장을 예상
- TV(HE) 매출도 OLED TV 판매 증가로 전년대비 12.3% 증가 등 H&A, HE 부문의 높은 매출 증가가 원가 상승을 상쇄할 것으로 판단. 또한 VS 부문은 비용 효율화 노력으로 적자가 감소 예상, 하반기에 흑자전환을 기대
- 2022년 1분기 전체 매출(연결)은 20.5조원으로 전년대비 14.8% 증가하여 컨센서스(19.85조원)를 상회 전망. 매출 성장이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
- 2022년 연간 영업이익(연결)은 4.78조원(24% yoy) 증가하여 최고 실적을 추정. 원재료 및 물류비용 부담은 2분기에 완화, 2분기 이후의 영업이익은 추정치를 상회할 가능성 상존
- 또한 2022년 P/E 7.7배, VS 부문의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의 턴어라운드를 감안하면 주가는 하방 경직성, 밸류에이션의 저평가 관점에서 반등에 초점 맞춘 비중 확대 제시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